

일년 중 가장 짙고 푸른 녹음이 우리를
반겨주는 시간. 지금 감각의 스위치를
켜고 숲땅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세요.
일상의 번잡함 일랑 모두 내려놓고 오직
손의 감촉에만 신경을 집중하여 세상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내리쬐는 햇살을,
긴 세월 나이를 짊어온 나무의 결을,
‘괜찮아’ ‘잘 될거야’ 믿을 건네는 것 같은
푸른 바람을, 토닥토닥 마음을 위로해
주는 숲의 숨결을, 만져요. 만져보세요.



지금, 감각의 스위치를 켜고
숲명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세요.

손끝에 만져지는 숲의 숨결

일상의 번잡함일랑 모두 내려놓고 오직
손의 감촉에만 신경을 집중하여 긴 세월
나이테를 쌓아온 나무의 결을, 토닥토닥
마음을 위로해주는 숲의 숨결을, 만져요.

만져보세요.



CONTENTS

06

숲의 선물

목재, 생활 속에 숲을 이루다
- 숲의 선물, 목재

08

숲의 초대

숲을 만지고 만들고 사용하다
- 문명의 탄생부터 함께 해온 목재 이용의 역사



12

숲의 만남

지구를 숨 쉬게 해줄 목조건축의 세계
- 건축가 조남호

18

어떤 정보

목재 활용, 어디까지 해봤니?
- 매일 쓰는 목재 아이템

20

나를 부르는 숲

청량하고 눈부신 상림의 여름을 만나다
- 경상남도 함양 상림(上林)

26

트렌드의 숲

일상을 공유하는 문화,
나의 등산을 인증합니다
- 등산스타그램



Vol. 54 July | August 2023

48

숲속 우체통

50

숲이 전해온 소식



30

브런치@숲

산딸기가 톡톡!
보기만해도 상큼한 여름날의 브런치
- 산딸기 콩포트 오픈샌드위치 & 산딸기 콩포트 요거트

34

숲 크리에이터

활자로 태어난 생각들이 나무를 통해 몸을 얻다
- 목수 함혜주의 아트퍼니처

38

에코 프로젝트

달걀 껍데기는 꼭 버려져야만 할까?
- 소재의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는 디자인 스튜디오,
위켄드랩

42

숲의 내일

국산 목재를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 2023 'I LOVE WOOD 챌린지'

46

콘텐츠의 숲

숲속에서 숲을 읽다
- 한여름에 읽기 좋은 숲이 등장하는 소설들



www.forest.go.kr

이번호 〈Magazine 숲〉을
휴대 기기에서도
간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Magazine 숲〉은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산림 문화 전문 매거진입니다.
〈Magazine 숲〉은 한국 간행물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Magazine 숲〉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
할 수 없습니다.

발행일 2023년 7월 31일 발행 산림청
기획 산림청 대변인실
magazinesup@korea.kr
T. 042.481.8843
편집·디자인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금속은 차갑고 단단한 성질을 가졌고 섬유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가졌다. 그렇다면 목재는? 목재는 바로 그 중간. 적당히 단단하며 적당히 부드러운 소재다. 목재는 그 성질을 이용하여 가구로, 악기로, 다양한 소품들로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목재라는 소재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를, 그리고 그 활용도를 다양한 각도에서 들여다본다.

목재, 생활 속에 숲을 이룬다

숲의 선물, 목재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든 목재를 만져볼 일들이 많았다. 지금 앉아있는 공간만 둘러보더라도 서너 가지 이상 목재로 만들어진 가구나 소품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잠을 자는 침대부터 작업 공간이 되는 책상, 수납 공간인 장롱, 가족이 단란하게 둘러앉는 식탁,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악기들까지 우리는 365일 24시간, 목재를 만지며 일상생활을 해간다.

목재는 이처럼 인류의 탄생 시점부터 생활 속에 있었던 것으로 너무나 친숙한 소재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가공하고 사용해온 목재는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 한 전문가는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볼 때 목재는 미적, 촉감적, 흡음적, 친환경적이며 건강에 도움을 주는 소재라고 말하고 있다. 그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목재는 가공될 때 나무의 결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외관이 매우 아름답다. 또한 손끝에 닿는 감촉도 매우 좋다. 최근에는 목공예 입문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 그들이 목공예 빠지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나무의 촉감이 너무 좋아서, 나무를 만지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아름답고 감촉이 좋고 친환경적이기까지 한 목재는 뛰어난 흡음성 또한 가지고 있다. 오케스트라의 많은 악기들이 목재로 만들어지는 까닭이다. 흡음성은 물체에 도달하는 소리를 약하게 해서 반사하는 성질이다. 흡음의 성질이 있는 목재로 만들어진 악기와 공간은 불필요한 잡음을 흡수하고 필요한 소리만을 전달한다. 자동으로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목재의 미덕은 사람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그 어떤 유독성 화학물질도 뿜어내지 않고, 친환경적이며 건강한 소재가 되어주는 목재. 환경 오염이 더욱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요즘, 더더욱 사랑받아야 마땅하다. 이제 더 건강한 지구 환경을 위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라도 목재를 더 자주, 더 많이 활용할 일이다. 생활 속에 숲을 이루어 줄 목재의 다양한 활용법, 이번 호 매거진 숲에서 만나보시기 바란다. 🌲

LIFE with WOOD

숲을 만지고 만들고 사용하다

문명의 탄생부터 함께 해온
목재 이용의 역사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석기시대, 청동기시대를 거쳐 철기시대, 역사를 배우면서 한 번쯤은
외웠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시대를 잊었다.
바로 나무의 시대. 나무는 인류 문명의 탄생과 진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자원 중 하나이다. 또한 나무는 인류 최초의 에너지원이자 건축자재였고
바퀴, 풍차, 선박, 가구, 악기까지 거의 모든 것의 자재로 사용되어온
소재이기도 하다. 인류 문명의 초기부터 현재까지 단 한 순간도 곁을
떠나지 않으며 인류를 이롭게 해준 목재. 목재 이용의 변천사를 되돌아보고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가져본다.

The Wood Age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재 사용의 흔적은?

목재는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부패되어 자연으로 돌아간다. 때문에 석기나 청동기나 철기와 같은
유물이 남아있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목재 사용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남아 있는 나무 사용의 흔적을 찾아낼 뿐이다.

이렇게 찾아낸 가장 오래된 목재 사용 흔적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발견된 150만 년 전 석재
손도끼의 잔류물이다. 망치나 도끼에 목재 손잡이를 만들듯 당시에도 나무를 돌과 함께 묶어 사
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농경생활이 시작되면서 목재의 사용은 더욱 빈번해지게 되었고 대부분은 이처럼 석기, 청동기,
철기와 결합하여 활용되었다. 사람들은 나무를 이용하여 도구를 만들어냈고 이를 이용하여 다시
산림을 베어내고 농경지를 만들었다.

역사가 발전하면서 인류는 목재에 대한 다양한 활용법을 발견해내기 시작했다. 우선 목재를 가공
하여 조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덕에 우리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어떤 삶을 영위했는지 엿볼 수
있다. 고대 이집트의 무덤에서 발견된 목재 가구들은 당시 이미 훌륭했던 목공의 기술을 보여준
다. 이집트인들이 목공을 하는 모습은 룩소르 인근 계곡의 네나몬과 이푸키의 무덤에서 발견된
벽화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동시에 기원전 16세기에서 11세기 사이 사용되었던 도끼, 자귀,
조각칼, 당김톱, 대패 등 목공 도구도 발견할 수 있다.

Agricultural Tools



목재는 인류 문명의 초기부터
현재까지 단 한 순간도 곁을
떠나지 않으며 인류를 이롭게
해준 고마운 소재다



Wooden Inventions

세상을 바꾼 목공 기술의 발견,
수레와 선박, 목판인쇄

역사를 발전시킨 목공 중 큰 의미를 가진 발명품은 기원전 3,500년 경 메소포타미아, 동유럽,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수레다. 초기에 통나무로 만들었던 수레는 2,000년에 들어서 나무 테두리에 바퀴살을 박아 만드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며 이는 교통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기에 충분했다. 수레의 등장으로 물자의 이동이 촉발되었고 사람들의 이동시간을 줄여 도시 발달에도 크게 기여했다. 사람들은 수레를 잘 이용하기 위해 도로를 닦고 다리를 놓았으며 전투에도 활용했다.

또 하나 인류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목재의 발견은 선박이다. 인류의 문화 발상지인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은 모두 강 유역에 있었고 당시부터 선박의 발전은 시작되었다. 최초의 배는 기원전 5,000년 경 이집트 나일강 하구에서 발달된 파피루스로 이는 풀을 엮어 만든 갈대배다. 이후 선박은 부목, 벌주, 통나무배, 가죽배, 껌어맞춘 배, 구조선 순으로 발전해갔는데 목재를 견고하게 짜맞추어 배의 골격을 만들고 외판과 갑판을 붙인 구조선은 기원전 15세기 경에 출현했다. 목재를 이용한 교통수단들이 발전하면서 세계는 더욱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수레와 선박기술의 발달이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었다면 목판인쇄의 발견은 인류가 힘들게 쌓아올린 정보와 지식을 후대에 전달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목판인쇄술은 나무판에 글씨나 그림을 새기고 그 위에 먹물을 바른 후 종이에 찍어 쉽게 책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시작된 것은 8세기 경.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물은 705년 경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다. 목판인쇄술은 활자인쇄술로 연결되었고, 덕분에 세상은 정보의 대폭발을 경험하게 되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책과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폭넓은 식자층의 시대가 열렸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더 이상 정보를 통치자나 교회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고 스스로 정보를 해석하면서 기존의 견해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촉발된 것이 근대 시대를 이끈 르네상스, 종교개혁, 과학혁명 등이다.

신소재 개발로 나아가는 미래 목재

목재의 사용은 중세를 넘어가며 한풀 꺾이기 시작했다. 공급이 부족했던 데다가 높은 강도를 보장하지 못하는 소재의 특성이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결국 목재는 금속과 콘크리트, 플라스틱 등 새로운 소재들에게 자리를 내주며 다양한 분야에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는 다시금 목재의 시대가 찾아왔다. 기후 위기가 눈앞으로 다가온 요즘, 다시 친환경 소재인 목재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나무는 살아서는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며 여러 생물들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벌채된 후에는 건축재, 가구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또한 목재는 가공이 쉬우며 친환경적이고 건강에도 매우 좋다. 고갈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며 폐기할 때도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자원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목재에 대해 새로운 활용법은 물론 새로운 소재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목재의 섬유소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대용품을 만드는 바이오 플라스틱이 그 일종이다. 또한 나무를 활용하여 유리처럼 투명한 소재를 만드는 등 다양한 건축재들이 개발되고 있다. 인류의 무한한 발전을 함께 해온 소재,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다시금 각광 받고있는 소재, 목재에 새롭게 관심을 가져보자.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가길 목재의 무한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Furniture



Architecture





Architect Namho Cho



1
철근콘크리트 필로티 기둥
모듈의 2분의 1 간격으로
목재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에
지붕판을 끼워 넣은 인왕산
숲속쉼터 (2021년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준공부문 대상).

지구를 숨 쉬게 해줄 목조건축의 세계

건축가 조남호

‘극한호우’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고 탄소저감은 이제 인류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시대라서일까? 최근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들에서는 탄소 감축 효과가 크다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 매거진 숲에 초대된 조남호 건축가는 20여 년 전부터 목조건축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현장에 도입하고, 끊임없이 실험해온 전문가이다. 그를 만나 이미 시작된 목조건축으로의 세계적인 움직임, 그러나 아직 한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목조건축 현황, 우리가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해야 할 논의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Studio KENN, 윤준환

건축가 조남호가 발견한 목조건축의 가능성

1997년 IMF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뛰어들었던 목조건축의 세계, 그 안에서 건축가는 엄청난 가능성을 발견했다. 비단 목조 건축이 탄소저감에 좋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가 만나게 된 건축 재로서의 목재는 유연하면서도 강하고, 건강하면서도 가공성이 좋으며, 보편적이고 경제적이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우리나라에 목조건축의 가능성을 알려온 그의 행보는 2000년 도쿄 교원연수원 게스트하우스 설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아직 국내에서 목조건축에 대한 엔지니어링 구조 해석이나 디테일 해석이 되지 않았던 터라 설계부터 시공까지 배우면서 해갈 수밖에 없었다. 설계안 구조를 안정되게 해결하기 위해 설계 도면을 캐나다와 뉴질랜드에까지 보내 해석을 받았고 시공도 직접 맡아 했다. 현장의 상황에 맞춰 설계안을 변경, 조정해갈 수 있어서 차라리 다행이었다. 그렇게 건축해낸 도쿄 교원연수원 게스트하우스는 그 노력을 인정받아 대통령상까지 받으며 건축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당시 그는 ‘아! 목조건축의 미래가 곧 오겠구나!’ 생각 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 20여 년 시장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미 세계는 목조건축 중심으로 한 걸음 옮겨갔는데도 말이다.

“20년 전 캐나다나 일본은 이미 탄소를 저감하는 국가적인 목표를 세웠고요. 그 목표 아래 건축과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정하고 큰 목재나 소경목 등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죠. 목재를 벌목하고 산업화하는 데 대해서도 환경론자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아요? 물론 사회에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게 마련이죠. 저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한 건강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세계가 이렇게 목조건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주 쉽게는 세간에 알려진 목조건축의 탄소저감 효과 때문이다.

“목조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1㎡당 약 0.25톤의 탄소를 저감해준다고 계산하고요. 전과정 평가에서는 콘크리트 대비 50%의 탄소저감 효과를 인정해줍니다. 그러나 가장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수명을 다한 나무가 숲에 그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서는 많은 양의 탄소가 방출되거든요. 이런 나무들을 목조건축의 재료로 활용하고 새로운 나무가 자라도록 순환 구조를 만든다면 환경에 훨씬 이롭다는 겁니다.”



2

서울숲 야외공연장에 설치된 ‘숨쉬는 그물’(2023). 세포부터 건강한 구조를 가진 목재를 쌓고 키워가 건강하고 거대한 건물로 완성해가는 목재건축의 미학을 보여주고 있다.

목조건축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우리나라에는 몇 가지의 목조건축에 대한 오해가 있다. 목조건축이라고 하면 우선 전통 한옥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한옥은 보와 기둥을 기반으로 한 구조물로 중목을 써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고 한옥이 가지는 한정적인 이미지의 건물로 탄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남호 건축가가 설명하는 목조건축은 이와 다르다. “사실 목재는 건강하면서도 저렴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최선의 건축재예요. 단면이 큰 목재를 이용하는 한옥과는 다르게 서양식 목조건축은 경골목구조 방식으로 지어지거든요. 경골목구조는 길이가 짧고 가벼운 목재로 프레임을 짜서 벽을 이루는 방식이에요. 다분히 서양 건축의 전통 같은 거죠. 시공도 쉽고 매우 경제적이예요. 경골목구조 방식과 한옥 같은 기둥, 보 방식을 접목하면

다양한 건축 유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2021년 개봉했다는 조남호 건축가의 작품, 인왕산 숲속쉼터는 딱히 전통적인 느낌이 없었던 것도 같다. “인왕산 숲속쉼터는 본래 군 초소였던 건물이잖아요? 초병들이 생활하던 공간이라서 인왕산 꽤 높은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차가 올라갈 수 없었죠. 사전 제작된 목재를 헬기로 운송한 후 대부분 조립을 통해 만들었어요. 숲속쉼터를 만들면서 저희가 몇 가지 실험적인 시도를 했는데요. 일부러 전형적인 목조건축의 인상에서 벗어나도록 디자인한 거예요. 바깥의 풍경을 안으로 잘 끌어들이고 안의 시선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디자인을 하면서 소위 ‘목조건축답다’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 거죠.” 그가 말하는 ‘목조건축답다’에서 벗어난 디자인은 무엇일까?

바로 목조건축의 상투적인 인상에서 벗어나 심지어는 콘크리트 구조와 비슷해진다는 것이다. GLT, CLT 등 다양한 공학목재를 활용하면 콘크리트처럼 다양한 강도를 가진 면, 덩어리 형태의 구성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의 작품인 이천 만화재, 광주 추사재, 서울 서리풀나무집 등을 보면 이런 차이가 금세 이해된다. 목재로 만든 건물이지만 상투적인 목조건축을 벗어난 디자인, 그러면서도 나무의 숨 쉬는 기능을 그대로 채운 작품들. 목조건축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고 보니 비로소 목조건축이 가야 할 방향이 보이기 시작한다.

너와 나의 삶을 영위하는 보편적 건축물

목조건축이 자리 잡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그는 같은 답변을 내놓는다. “목조건축은 건강하다, 친환경적이다, 이런 관점의 설명이 대부분인데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만을 강조하는

3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외벽을 두르고 내부를 온전히 목조로 구성한 서리풀나무집(2019).

4

목조건축에 콘크리트 구조를 합쳐 만들어 건축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 제시했던 도고 교원연수원 게스트하우스 (2000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대상/ 대통령상).



것은 목조가 왜 다르고 특이하나를 알리는 데 그치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반대로 목조가 왜 보편적인지를 설명하려고 애씁니다. 단순히 탄소를 저장해서 좋은 건축이 아니라 사무실로도 좋고 주거나 근린생활시설로도 좋은 공간을 건강하고 저렴하게 건축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거죠.” 조남호 소장의 말을 듣고 보니 목조건축에 대한 강한 인상이 지워지고 오히려 한결 편안하고 어디서나 만나볼 수 있음직한 건축물이 눈앞에 떠오른다. 너와 내가 삶을 영위해가는 보편적인 건축물, 다만 그 자재를 목재로 사용하여 더 건강하고 저렴하게 지을 수 있다는 말이 그 어떤 목재의 특장점보다 설득적으로 들린다.

집단의 지혜를 구해야 할 때

목조건축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실제로 건축학과에서는 아직 목조건축 교육에 대한 학제가 없다. 정규 교과목이 되지 못하더라도 워크숍이나 포럼, 세미나 등에서 다룰 수 있을 텐데 그런 기회조차 쉽지가 않다. 교육의 기회를 가지면 적어도 학생들이 목조건축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업계에 나오지는 않을 텐데 말이다.

목재에 관해 또 하나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법이나 시스템 문제다. 현재는 목재가 합당한 건축재로 인증 받을 수 있는 법이나 시스템이 온전하지 않다. 내화, 불연, 난연, 방음과 같은 인증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목재는 건축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목조건축이 확산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논의가 시작되고 정책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다.

“코로나도 있었고요. 이제 기후위기도 남의 일이 아니죠. 이미 자연은 경고를 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최근 목조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많은 지자체들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다만 이것이 무조건 친환경적일까? 이런 논의에서만 그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목조건축, 목조도시를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바라보았으면 해요. 예를 들어 아주 보편적인 사람들이 주택이나 건물을 짓고자 할 때 ‘기둥과 보는 어떤 가능성이 있든지’, ‘목조로 된 사무실이 어떤 가능성을 갖게 한다면’과 같은 문화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집단적 지혜를 바탕으로 혁신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해다. 온 국민이 다함께 노력한 결과, 국토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푸르름을 이루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렇게 가꾸어진 산림을 잘 활용하여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것이다. 지키고 보존하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효율적인 간벌로 숲과 큰 목재를 키우고 잘 키워진 목재는 삶의 공간을 이루는 목조건축의 소재로 쓰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숲의 순환구조다. 지속적인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지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조르고 있다. 목조건축 시대를 향해 달려가는 길, 서두르자. 할 일이 많다. ☀



Wood Items

목재 활용, 어디까지 해봤니?

매일 쓰는 목재 아이템

글 매거진 숲 편집실



플라스틱 OUT



목재 텀블러

친환경적이며 편안하고 상쾌한



목재 칫솔

환경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텀블러 지참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지참하는 텀블러도 생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보다 온실가스가 더욱 많이 배출된다고 하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무늬만 친환경인 텀블러 대신 친환경 목재 텀블러를 사용해보면 어떨까? 건강에도 좋고 사용한 후에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목재 텀블러, 바꿔야 할 이유는 이미 충분하다.

칫솔은 사용주기가 짧으면서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환경오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아이템이다. 때문에 별다른 생각없이 사용하고 있는 칫솔만 나무로 바꿔도 환경 오염을 일정 부분 막을 수 있다. 문제는 습기에 약한 나무의 특성 때문에 청결과 내구성,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최근 생산되고 있는 목재 칫솔들은 CXP나 특수 소재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다. 유해 물질 없이 단단하고 상쾌한 친환경 목재 칫솔을 우리 집 욕실에 초대해보도록 하자.

in our daily lives

우드카빙이라고 하면 흔히들 목재로 된 식기나 작은 가구 등 인테리어 소품을 만드는 것을 연상하곤 한다.

그러나 플라스틱 사용을 절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최근에는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다. 다정하고 편안한 감촉, 자연의 느낌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친환경 목재 신문물을 만나보도록 하자. '이런 것까지 목재로?' 하며 놀라다가 '어디 나도 한번!' 하며 시도해볼 수 있는 다양한 목재 아이템들을 소개한다.



너나 내가 함께 나눠 기는



커플 우드링

흡음성이 좋은 나무로



목재 스피커



내 손으로 만들어 선물할 수 있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반지를 나눠 끼고 싶다면 '나무반지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에 도전해보도록 하자. 어떤 나무로 만들지부터 어떤 디자인에 어떤 레터링을 써넣을지 결정한 후 직접 만들어 선물할 수 있다. 디자인을 결정하고 조금씩 나무를 다듬어가는 시간. 모습을 드러내는 반지를 보며 나무의 촉감만큼이나 다정하게 느껴지는 서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로부터 인류는 나무를 이용해 악기를 만들었고 나무로 건축된 공간에서 연주를 했다. 목재가 가진 놀라운 흡음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피커도 소리를 전달하는 기계. 목재로 만든 스피커로 더 깊어진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자. 영화를 들을 때는 더욱 현장감 있는 소리를, 음악을 들을 때는 노이즈없이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청량하고 눈부신 상림의 여름을 만나다

경상남도 함양 상림(上林)

함양에 가면 꼭 상림을 들러야 한다. 여름엔 특히 그렇다. 아무리 찜통 같은 날에도 상림에 들어서면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순식간에 땀을 식혀 준다. 이 시원한 숲길을 맨발로 걷는다. 신라시대에 조성된 천년의 숲. 느릿느릿 걷다 보면 세월에 깎인 유적들을 만난다. 그뿐인가. 곱고도 화려한 연꽃들도 만나고, 이끼가 웅단처럼 깔린 이끼원을 만나고, 사랑나무 연리목을 만나고, 아이들 웃음소리와 솟구치는 분수를 만나고, 온갖 꽃들과 달달한 아이스크림 가게도 만난다. 상림의 여름은 그렇게 청량하고 눈부시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신중식

함양은 지리산 자락에 있는 고장이다. 경상 우도의 유학을 대표하는 곳인데다 산 좋고 물 좋은 고장이라 함양에는 양반 사대부와 관련된 문화재가 많다. 그 함양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어릴 때 뛰어놀던 곳으로 누구나 그리워하는 데가 있으니, 바로 천년의 숲 상림이다.

통일신라 말기에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림

상림(上林)은 통일신라 말기 진성여왕(887~897) 때 함양군 태수로 부임한 최치원 선생이 홍수를 막고자 조성한 숲이다. 따지고 보면 천년이 아니라 천백 년도 더 된 숲인 것이다. 상림 바로 옆 위천 이 당시에는 함양읍의 중앙을 흐르고 있어 홍수 피해가 빈번하였으므로 최치원 선생이 지금처럼 강물을 돌려 독을 쌓고 독 옆으로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이 숲은 처음에는 대관림(大館林)이라고 하여 각종 재해 방지와 풍치를 위한 숲으로 잘 보존되었으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큰 홍수로 중간이 유실되어 상림(上林)과 하림(下林)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후 하림은 많이 훼손되었지만 상림은 당시 숲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 애초의 대관림은 지금보다도 훨씬 큰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전하는 말로는 가야산의 나무를 옮겨 심었다는데, 그 옛날에 물길까지 바꾸면서 이런 대규모 숲을 만들어낸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한다.



1
진성여왕 때 최치원 선생이
홍수를 막고자 조성한 숲,
수목 2만여 그루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다.

2
공원에 들어서면 이끼가
초록의 웅단처럼 깔린
이끼원을 처음 만나게
된다.

3
발 씻는 곳은 물론,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장까지
마련해두어 맨발 걷기에도
참 좋다.



함양 상림 천년의 숲을
영상으로 만나 보세요!





있다. 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신발 양말 다 벗고 맨발을 디뎌본다. 찰찰하고 단단한 땅의 질감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걸음을 옮겨 본다. 작은 모래 알갱이들이 발바닥을 꼭꼭 눌러준다. 그래, 맨발로 흙을 밟아보는 게 얼마 만인가. 이럴 땐 최대한 천천히 걸어줘야 한다. 느릿느릿 느릿느릿. 그러다 수백 년 묵은 고목의 짹짹 갈라진 껍질이 안쓰러워 손으로 쓰다듬어 본다. 문득 호로로록 하는 새 소리가 들린다. 졸졸졸 물소리도 들린다. 분명 조금 전까지는 의식하지 못하던 것이었는데,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게 들린다. 풀 향도 코를 찌른다. 무뎠던 감각이 깨어나는 것이다. 멈춰 있던 시계가 갑자기 돌아가듯, 주변 사물들이 일제히 깨어나 움직이는 것 같은 경이로움. 이것이 바로 숲의 힘이 아닐까.

자연과 역사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상림공원

그렇게 상림을 걷다 보면 둘러볼 것도 참 많다. 오늘날 상림은 그저 천년의 숲으로만 있는 게 아니다. 오랜 역사 유적과 더불어 현대에 함양군이 조성한 최치원 역사공원, 문화예술회관 등도 연접하여 있고, 다양한 친환경 볼거리와 휴식공간이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상림공원'이다. 실은 이 공원에 들어서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도 '이끼원'이라는 곳이다. 드물게도 이끼를 주제로 하여 따로 마련된 자그마한 공원인데, 초록의 이끼가 웅단처럼 깔려 있고 작은 바위를 틈에 음지형 꽃과 풀들이 조용히 서식하고 있다. 그 풍경이 금세라도 어디서 숲의 정령이 나타날 듯 묘하게 고즈넉하고 이국적이다.

이끼원을 지나 조금 더 가면 상림에서도 유명한 '천년약속 사랑나무'를 만난다. 자작나무과인 개서어나무와 느티나무가 가까이 자라다 서로 한 몸으로 붙어버린 귀하디귀한 연리목(連理木)인데, 연인이 이 앞에서 손을 잡고 기도를 올리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설이 있다.

그 외에도 상림공원에는 계절에 따라 다양한 꽃들을 피워내는 꽃단지가 있는데, 이 계절에 특히 사랑받는 것이 연꽃단지이다. 6월 하순부터 연꽃이 피기 시작하여 7~8월 내내 그림 같은 연꽃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다. 진흙 속에서 비단 보자기를 펼치듯 탐스럽게 피어나는 연꽃을 보노라면 인당수에 몸을 던진 효녀 심청이가 저 꽃을 타고 두둥실 떠오를 것만 같이 황홀하다. 연꽃단지는 정확하게 말하면 물의 정원이다. 백련, 홍련, 수련 등 연꽃만이 아니라 평소 보기 어려운 다양한 수생식물들도 만날 수 있다. 청초한 수련이 동동 떠 있고,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이 비쳐 커다란 그림이 된 연못. 그 연못에 놓인 징검다리를 엄마 아빠 손을 잡은 아이가 하나, 둘, 셋, 하면서 건너간다. 실로 오랜만에 만나는 추억의 풍경이다. 저 아이는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워 이 연못을 떠올리겠지. 아마 어른이 되어서도 두고두고 이 날의 풍경을 기억하고 그리워할 것이다.



천년을 지켜온 상림, 새로운 천년을 이어가다

상림은 이제 전국 각지에서 숲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함양의 명소가 되었다. 문화 유적도 다양해서 상림을 조성한 고운(孤雲) 최치원 선생을 기리는 사운정(思雲亭)과 신도비(神道碑)를 비롯하여 함양읍성의 남문이었던 함화루, 이은리 냇가에서 옮겨온 이은리 석불, 흥선 대원군이 세운 척화비, 함양을 빛낸 선인들의 흉상과 공덕비가 있는 역사인물공원 등 함양의 역사를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또한 상림 숲길의 끝에는 정겨운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있다. 물레방아는 실학파였던 연암 박지원 선생이 청나라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열하일기에서 처음 소개하였는데, 1792년에 선생이 함양군 안의 현감으로 부임하자 실제로 물레방아를 만들어 실용화하였다고 한다. 최치원 선생도, 박지원 선생도, 높은 기득권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면서도 이용후생(利用厚生)과 실사구시(實事求是)로 민초들의 삶을 개선시키고자 고뇌한 분들이었다. 천년을 이어온 상림의 여름. 녹음이 눈부시다. 이 숲은 어디서 왔는가? 길고도 굴곡진 역사를 곳곳이 버텨온 선인들이 있었고, 오늘을 가꾸어가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다. 그 덕분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니, 홀로 이 숲을 걸어도 나는 결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천년을 지켜온 상림이 새로운 천년을 이어가고 있다. ☀

자연과 역사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상림공원, 이제 상림은 전국 각지에서 숲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함양의 명소가 되었다

4 연못에 놓인 징검다리를 건너며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는다.

6 맨발로 땅을 디뎌보면 찰찰하고 단단한 땅의 질감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5 상림공원에는 문화유적도 다양해서 함양의 역사를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7 이 계절에 특히 사랑받는 연꽃단지. 7~8월 내내 그림 같은 연꽃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다.

일상을 공유하는 문화,
나의 등산을 인증합니다



#등산스타그램

SNS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등산 인증샷을 올리는 트렌드를 뜻한다. 정상석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거나 등산 코스를 선으로 그려 올리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세대들이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등산 기록을 인증함으로써 타인의 시선을 즐길 뿐 아니라 스스로 동기부여에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HIKING

인증샷을 올리며 소통하는 문화는 얼마 전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었을 때 자리를 잡았다. 당시에는 모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 방식을 온라인 인증방식으로 바꾸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개별적으로 참여한 후 앱을 통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치러낸 산행대회를 들 수 있다. 코로나가 물러가며 끝날 것 같았던 이런 인증 문화는 새로운 세대의 소통방식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았다. 등산스타그램은 그 문화의 한 축이다. 일상을 공유하며 활발하게 소통하는 등산 문화, 등산스타그램에 대해 집중 조명해본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산타는정아

새로운 세대를 중심으로 인터넷 플랫폼이 인기를 끌면서 자기관리 SNS 인증샷 올리기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젊은 층이 선호하는 자기관리에는 '오늘 운동 완료'를 뜻하는 '오운완' 등 피트니스는 물론이고 공부, 미라클모닝, 재테크, 환경보호 등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매일 플랫폼에 자신이 실천한 내용을 업로드하고 느낀 점을 공유한다. 이를 본 팔로워들은 공유한 피드백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아 서로를 격려한다. 인증샷을 올리기에 자주 활용되고 있는 미디어 채널은 인스타그램이다. 인스타그램은 이미지를 주요 기반으로 한 매체로 '좋아요', '댓글' 등 비교적 간단한 내용을 통해 소통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채널의 빠른 공유와 소통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모아주는 역할도 한다.

최근 등산에 대한 인증 인스타그램이 급증하는 이유는 MZ세대들에게 등산이 트렌디한 피트니스의 일종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등산은 건강과 함께 부지런함을 보여줄 수 있는 운동이며 성취감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는 활동이다. 높은 정상에 올라 풍경을 내려다 보는 뿌듯함을 잊지 못해 주기적으로 등산을 한다는 의견도 많다. 그래서인지 등산스타그램에는 유난히 정상석과 함께 찍은 사진, 탁 트인 풍경을 찍은 사진, 코스를 찍어 올리는 사진들이 많다. 등산스타그램이 궁금하다면 인스타그램에서 #숲, #산, #오등완 #등산스타그램 등의 해시태그를 찾아보시길. 자신의 등산을 인증하는 등산스타그램들과 함께 산을 가까이할 수 있는 좋은 동기와 같이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동료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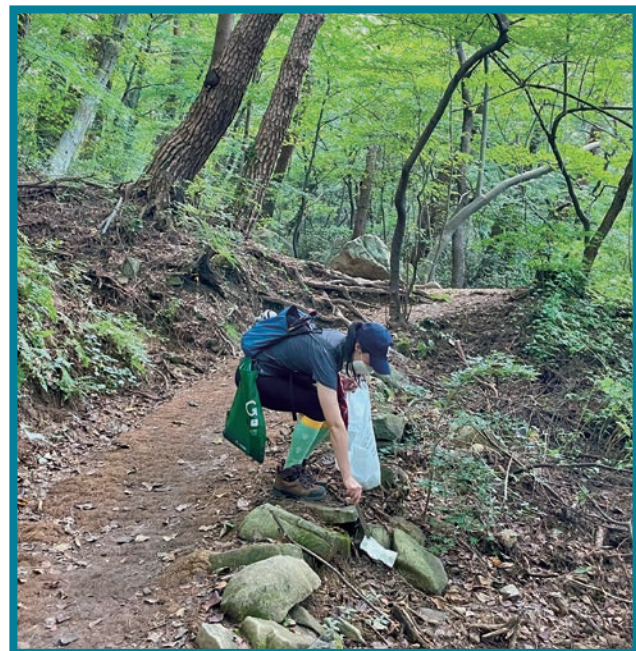
등산 인증샷 찍는 법? 안전이 가장 중요!

등산스타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인증샷을 찍어 올림으로써 정상을 정복했다는 것을 인증함과 동시에 SNS 친구들에게 산을 추천하는 창구로도 활용한다.

그렇다면 등산스타그램 인증샷은 어떻게 찍어야 할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안전을 강조한다. 놀라운 풍경을 선사하는 전망대나 정상석 앞에서의 사진은 좋다. 그러나 더 좋은 뷰를 얻기 위해, 더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기암괴석에 올라앉거나 낭떠러지 바위 위에서 휴대전화 사진기를 들이대는 일은 피해야 한다. 자칫 추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행 추락사고는 모두 8백여 건. 인증샷을 찍으려고 하다가 발을 헛디디는 경우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재난구조대는 출입금지구역으로 산행을 할 경우 사고가 나면 구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반드시 정해진 탐방로를 이용하기를 권하고 있다.



#등산 #안전수칙준수



@ramzzi_santiayo



#쓰레킹 #플로깅

플로깅 등 사회활동 프로그램에도 함께 참여해요!

최근 등산스타그램에 주로 등장하는 도구들이 있으니 바로 비닐봉지와 집게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두 손이 더욱 무거워진다는 이들이 빠진 것은 버려지는 쓰레기를 주워 오는 플로깅(plogging). 플로깅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인 스웨덴어 'plocka upp'과 영어 단어 'jogging'의 합성어다. 쓰레기를 줍기 위해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이삭을 줍는 것과 같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이를 우리나라식으로 바꾸면 '줍다'와 '조깅'을 합친 '줍깅', '쓰레기'와 '트레킹'을 합친 '쓰레킹'이라고도 불린다.

이런 활동은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기에 주저하지 않는 MZ 세대에 큰 반향을 얻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등산스타그램에 인증샷을 올림으로써 주변 친구들을 독려하고 있다. 새로운 취미로 등산을 시작하고 싶은 등린이라면 등산스타그램을 통해 사회공헌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보기 바란다. 가치관을 공유하는 친구들과 함께 산을 오르는 행복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미니 인터뷰 | 2년째 등산스타그램을 운영해온 산타는정아

Q 산에는 얼마나 자주 다니시나요?

A 계정을 보니 21년 7월부터 다니기 시작했더라고요? 벌써 2년이 되어가는데요. 처음 등산을 시작했을 땐 한 달에 1~2번 산행을 하다 우리나라의 명산을 알면 알수록 가보고 싶은 산들도 많아져 현재는 주말에 특별한 일정이 없는 경우 주 1회 등산을 하고 있어요.

Q 등산스타그램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처음 산 사진을 올렸을 때 제 사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너무 신기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인스타를 통한 한 분 한 분과 소통을 하게 되었고 다양한 산을 접하면서 가고 싶은 산들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등산스타그램이 쌓여가면서 산을 타는 즐거움과 소통의 즐거움, 기록을 통한 뿌듯함을 모두 느낄 수 있었고요. 이런 활동이 평범했던 일상에 큰 즐거움으로 다가와 이제 산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Q 등산은 계획적으로 다니시나요?

A 처음에는 가고 싶은 산을 미리 계획해서 다녔어요. 그런데 등산은 비가 아니더라도 풍속, 습도 등 날씨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웠다고 하더라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미리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등산가기 전 산악날씨를 보고 움직여요. 특히 운해시즌, 눈꽃산행시즌이 시작되면 더 예민하게 인천님들 피드를 살피고, 날씨를 찾아보곤 하죠. 등산을 하면서 전국 산악날씨를 검색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는데 아마 산을 타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Q 동선을 그려넣는 분들도 계시고요. 시원한 뷰나 정상석을 찍어 올리는 분도 계신데요. 정아님의 등산스타그램 스타일은 어떤 건가요?

A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이 많아지면서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산을 한번 다녀오면 피드 2~3개 정도를 올리는데 메인 사진엔 제 사진을 넣고 코스나 소요시간, 거리나 주차 등등의 등산정보를 알려드려요. 그리고 두번째 피드엔 정상석 사진을 올리는 편이에요. 피드에 통일감을 주고 싶어서 메인 사진은 되도록 상반신 사진을 올리고 있고요. 저와 산을 함께 기록하고 싶어 메인 사진은 저와 배경이 조화롭게 잘 나온 사진으로 고르는 편입니다.

Q 등산스타그램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요?

A 우선 산으로 가야겠죠? 하하. 그 다음 중요한 점은 소통인 것 같아요. 저는 등산모임은 거의 하지 않고 인스타 안에서 등산을 즐기는 다양한 분들과 소통하며 등산 팁이나 산행지 추천, 산에서의 희로애락을 나누고 있어요. 또 하나 강조할 점은 꾸준함. 저는 주 3회 정도 피드를 올리고 인천님들 피드에도 놀러가 꾸준히 댓글을 달고 있어요. 댓글을 단다는 것은 소통을 꾸준히 한다는 것과 같거든요. 제 등산스타그램 피드에 놀러오세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산딸기가 톡톡! 보기만해도 상큼한 여름날의 브런치

산딸기 콤포트 오픈샌드위치
&
산딸기 콤포트 요거트

마침 산딸기 철이다. 한 해에 일주일 정도만 수확이 가능한 산딸기. 때문에 산딸기는 수확한 다음 잼이나 콤포트로 만들어 저장해두는 것이 좋다. 콤포트는 잼보다 달지 않게 만드는 저당류 잼. 수확한 산딸기를 콤포트로 만들어두고 오픈 샌드위치나 요거트에 넣어 다양하게 활용해보자. 입맛 잃기 쉬운 계절, 화사하고 가벼운 브런치 식탁이 딱딱 완성될 것이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Studio KENN



Raspberry Compote Open Sandwich

산딸기 콩포트 오픈샌드위치

재료 Ingredients

바게트 빵 1개, 크림치즈 적당히,
산딸기 세척용 식초 적당량,
산딸기 콩포트 (산딸기 200g,
설탕 60g, 화이트와인 2T)
크림치즈 8t, 토핑용 산딸기,
블루베리 적당히



산딸기 콩포트 오픈샌드위치
만드는 법을
영상을 통해 만나보세요!

만드는 법 Recipe

- ① 커다란 볼에 물을 가득 채우고 식초를 붓고
산딸기를 넣어 잠시 담가둔 다음 깨끗이 씻는다.
- ② 토핑용과 콩포트용으로 산딸기를 분리시킨 후 물기를 제거한다.
- ③ 냄비에 산딸기와 설탕, 화이트와인을 넣고 섞은 다음 강불에서 약불로 조절해 가며 끓인다.
- ④ 밀이 타지 않도록 계속 저어주며 끓기 시작한 후 3분 정도 약불에 졸이면
산딸기 콩포트 완성. 뜨거운 산딸기 콩포트를 식혀준다.
- ⑤ 바게트나 와플, 치아바타 등 좋아하는 빵을 선택하여 적당히 잘라 준비한다.
- ⑥ 빵에 크림치즈를 넉넉히 발라주고 위에 산딸기 콩포트를 펴바른다.
- ⑦ 남겨둔 토핑용 산딸기와 블루베리 등을 떨어지지 않게 잘 올려주면 완성.



Raspberry Compote Yogurt

산딸기 콩포트 요거트

재료 Ingredients

그릭요거트 3T, 산딸기 콩포트 2T,
그레놀라나 시리얼 1T, 가니쉬,
견과류 조금, 토핑용 산딸기 적당량



산딸기 콩포트 요거트
만드는 법을
영상을 통해 만나보세요!

만드는 법 Recipe

- ① 컵에 그레놀라나 시리얼을 깔아준다.
- ② 꾸덕한 그릭요거트를 넣는다.
- ③ 식혀 둔 산딸기 콩포트를 올린다.
- ④ 견과류를 적당히 올리고 토핑용 산딸기를 예쁘게 올리면
산딸기 콩포트 요거트 완성.

/ 콩포트의 단맛을 즐기려면 당분이 없는 요거트를 활용하고
견과류는 그레놀라나 시리얼과 식감이 비슷하도록 잘라서 넣어준다.

활자로 태어난 생각들이 나무를 통해 몸을 얻다

목수 함혜주의 아트퍼니처



나무와 동고동락하며 사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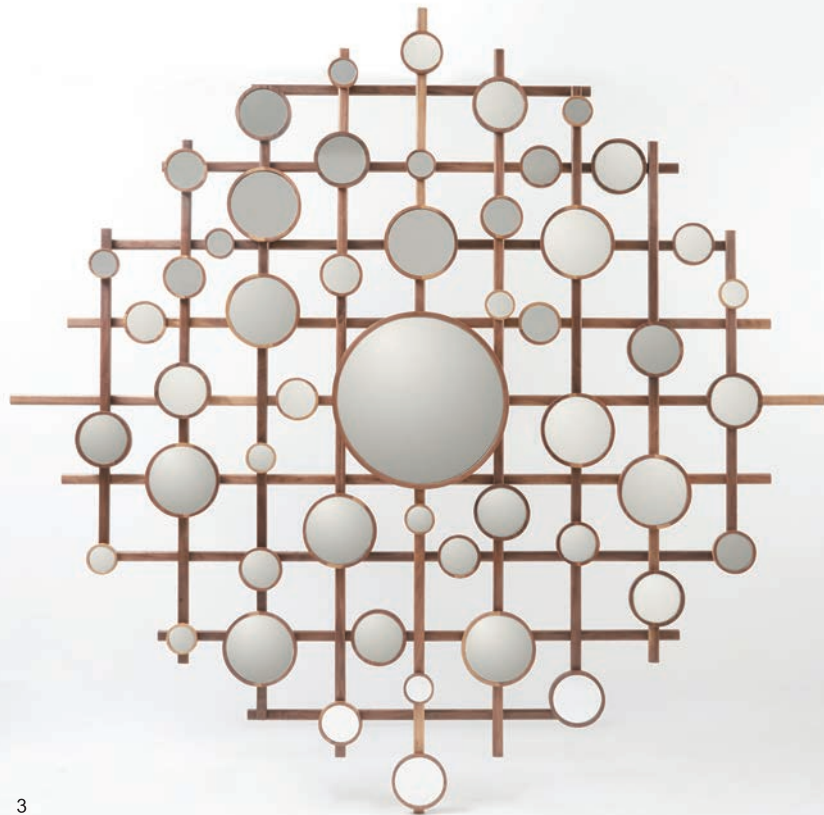
목수, 함혜주의 나날은 분주하다. 최근 국내외 200여 명의 작가와 함께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에 참여하기도 했고 작업실 겸 목공방을 운영하며 주문 제작과 교육도 하고 있다. 요즘에는 목조각 작업에 푹 빠져 있다. 나무와 함께 하는 것이 천직인 것처럼 보이는 그녀. 그러나 나무를 만나기까지 그녀는 수많은 길을 돌아와야 했다. “목공이라는 단어도, 목수라는 직업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전공도 달랐고 일본에 가서도 유리공예를 했으니까요. 나무로 만든 요람을 보고 난 후 갑자기 나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무라는 물성이 궁금했고 다루는 방법을 알고 싶어 무작정 찾아갔죠.”

나무와 처음 만난 순간을 이렇게 회고하는 그녀는 나무를 재료가 아닌 동료로 표현했다. 작업에 앞서 나무에 손을 대고 있으면 축적된 생명의 온기,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시간의 탑 같은 경이로운 촉감이 느껴진단다. 그렇게 매일 함께 하는 동안 애정이 쌓였고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동료가 되었단다. 마침내,



산업디자인을 전공했지만 공예과 수업에 더 흥미가 많았다. 일본으로 건너가 유리공예를 배웠지만 즐기지 못했다. 여느 날처럼 국내 소형작품을 돌아보던 중 나무로 만든 요람을 보았다. 시선이 꽂히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무와의 조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후부터 목수 함혜주는 나무와 동고동락하며 아트퍼니처 크리에이터로 살고 있다. 작업에 앞서 나무에 손을 대고 있으면 한 그루의 큰 나무가 되기까지 머금었던 햇살이 고스란히 느껴진다는 그녀. 나무의 물성을 사랑하는 목수, 함혜주의 아트퍼니처를 만나본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IRIHI Studio



생각들을 형태로 압축시켜낸 결과물

보통은 가구를 만든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목수 함혜주는 가구를 조각한다. 이것은 생활가구와 아트퍼니처가 갖는 차이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생활가구는 주거·사무·공공 영역의 공간에 ‘적합’하고, 사용자 니즈를 ‘반영’하고, 휴먼 스케일을 ‘적용’한 가구다. 반면에 아트퍼니처는 이런 개념을 떠나 제작자의 철학과 관점을 우선시한다. 조형성, 메시지, 감각 같은 요소에 집중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작업노트에 쓴 짤막한 글이나 인상에 관련한 공부를 하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러프하게 스케치를 하죠. 며칠 후 다시 보고 몇 주를 묵혀뒀다 다듬기도 하면서 스스로를 설득해요. 그 후 스케치를 형태로 구체화하고 설계와 모델링을 하거나, 석고나 흙으로 목업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작 전반의 순서를 결정해요. 그리고 나무를 선별합니다. 작업 흐름이 끊기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한 번 시작하면 8~9시간은 내리 이어서 하는 편이에요. 부재 준비, 가공, 조립과 샌딩,

1
나무가 건조되면서 수축팽창을 통해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크랙 화병〉.

2
다른 역할을 하지만 유기적으로 연계된 감각기관, 눈, 코, 입을 나무 세 조각에 깎아 밀접한 관계를 표현한 〈접선〉.

3
적극적이든 간접적이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의 상호성을 표현한 〈인드라망〉.

4
일반적으로 ‘의자’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체해 최소한의 일부분만 노출시킨 〈히든체어〉.





5

오일마감, 건조 시간을 보내면 작품에 따라 1주 ~12주 정도 걸립니다.”

목수 함혜주는 이처럼 글로 풀어낸 생각들을 다시 형태로 압축하는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다. 인간의 본성, 자연, 본질과 현상에서 비롯된 사유를 조형언어로 재현하는 것이다.

의식의 램프와 인드라마

그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의 램프와 인드라마는 목공기술을 배운 지 1년이 되던 무렵 만든 첫 작업이다. 열고 닫을 수 있는 88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의식의 램프〉는 빛을 확장하거나 축소시키는 아날로그 방식의 접근을 유도한다.

“존재 유무를 가르는 감각, 특히 시각에 집중한 작품이에요. 우리는 신체 여러 감각기관 중 시각을 통해 외부 세상을 가장 많이 인지하잖아요? 형상도 없이 내면을 떠돌며 우리를 지배하는 감정 같은, 보이지는 않지만 내적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을 빛을 통해 시각적으로 드러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대표작 〈인드라마〉은 ‘나라는 우주와 그 속을 떠도는 소행성들’이라는 일기에서 시작된 작품이다. 작품명에서도 등장하는 인드라는 불교에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다. 적극적인이든 간접적인이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의 상호성을 표현한 것. 이음새마다 꿰어져 있는 구슬은 서로를 비추고 비추어 주는 관계를 상징한다. 목수 함혜주는 〈인드라마〉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가 서로에게 빛과 생명을 주고받는 구조 속에서 더불어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숲을 거닐며 나무를 만지며 걸러낸 모티브

그녀가 즐겨 사용하는 목재는 호두나무, 참나무, 산벚나무, 단풍나무, 물푸레나무, 너도밤나무 등의 수입목과 은행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오동나무 등의 국산목이다.

“은행나무는 화석나무라 불릴 만큼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수종이죠. 목질이 무른 편이라 조각 작업을 할 때 한결 수월해요. 밝고 노란 빛깔을



6

띠고 있어 색을 입히거나 디테일한 묘사가 필요한 작업을 할 때 자주 애용합니다. 느티나무는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적고 결이 곱고 무늬가 수려해요. 은은하게 윤이 나는 황갈색 빛을 띠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나무의 물성을 사랑하는 목수답게 목재의 성질에 대한 설명을 끝도 없이 풀어놓는다.

목재를 사랑하는 그녀는 숲을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살아내기 바쁜 일상의 속도를 마음이 따라가지 못할 때 가까운 숲을 찾아가곤 한다는 그녀. 숲에 찾아가 나무, 꽃, 풀벌레, 작은 씨앗까지 생명이 가진 수천 개의 시간에 가만히 젖어 들곤 한다는 그녀. 그녀의 작품들을 보며 사유의 숲을 거니는 한 사람이 자꾸 떠올랐던 건 그런 이유가 아니었던가 싶다.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내 작업이 나무 한 그루의 생명에 빚달 가치가 있는가’를 되뇌인다는, 그래서 더욱더 긴 시간 침묵하며 거르고 걸러 모티브를 얻어낸다는 목수 함혜주의 작품들을 가만히, 오래 들여다보고 싶어졌다. ☂

나무의 물성을 사랑하는 목수 함혜주는 글로 풀어낸 생각들을 형태로 다시 압축하는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다

5

열고 닫을 수 있는 88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의식의 램프〉. 빛을 확장하고 수축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접근을 유도한다.

6

〈산〉, 일월오봉도에서 모티브를 얻어 숲을 걸으며 사색에 잠긴 어느 날의 기억을 입체로 조각했다.

달걀 껍데기는 꼭 버려져야만 할까?

소재의 기능성에 의문을
던지는 디자인 스튜디오,
위켄드랩

“바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사용하는
일은 적절한 이유에 따라 행해졌을 때, 우리
자신의 존엄을 표현하는 사랑의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린치스코 교황의 말이다. 이 말과 함께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이라는 책의 서문이 시작된다. 이 책은 파타고니아
라는 브랜드의 창업자 이본 쉬나드가 파타고니아 기업 스토리를 담은
것이지만, 그 너머에 담긴 환경에 대한 진심과 물건과 자연을 일회용품처럼
취급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세상엔 이미 물건을 한번 쓰고
버려지지 않게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다. 업사이클링은 물론이고
재활용 시스템이 그렇다. 그리고 옷이나 물건을 고쳐서 사용하거나 안쓰는
물건을 나눠쓰는 것도 그런 일에 속한다. 여기, 그런 실천들에 한걸음
더 나아가 버려지는 소재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새로운 쓰임을
찾아 대안을 탐구하는 곳이 있다.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테마로
탐구하는 디자인 스튜디오, WKND Lab.(이하
위켄드랩)을 운영하는 이하린, 전은지 두 공동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위켄드랩

우연의 계기가 운명의 기회로

많은 일들이 어떤 우연의 순간을 계기로 시작하게 되기도 한다. 위켄드랩의 전은지 대표의 경우도 원래 자신의 작업을 하는 스튜디오 운영이 꿈이긴 했지만, 실무 경험을 더 쌓고 나서의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유럽에서 유학을 하던 전은지 대표는 코로나 시기를 맞아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학교 동기였던 이하린 대표와 함께 우유로 가구를 만드는 등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위켄드랩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저희는 소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저희만의 방식으로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디자이너로서 환경, 사회, 문화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믿어요.” 위켄드랩은 현재까지 달걀과 굴 껍데기, 오리알 등 어찌보면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소재로 사용되는 것은 낯설 수도 있는 바이오 소재를 활용하여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식으로 작업을 지속해왔다. 또한 바이오 소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재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지속가능성을 위한 탐구와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위켄드랩은 소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단계를 통해서 그들만의 방식을 만들어간다. 새로운 소재를 발견할 때마다 소재가 가지고 있는 물성뿐만 아니라 넓게는 역사적, 관념적인 배경까지 고민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이처럼 위켄드랩이 작업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폭넓고 깊게 고민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고민이 오브젝트로까지 이어진다. “탐구된 소재로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는 경우에 중요한 건, 그 오브젝트가 소재와 이야기, 우리의 철학을 잘 전달할 수 있는거예요.” 전은지 대표의 말은 위켄드랩의 철학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껍데기 재활용

#바이오 소재



1
위켄드랩은 소재로
사용되기에 낯선 소재들을
이용하여 오브젝트를 만든다.

버려지는 것들의 쓸모를 찾아 재탄생시키는 작업

“저희만의 이야기를 잘 풀어내기 쉬운 분야는 맞춤형으로 만들어지는 디자인작품과 한정판으로 제작되는 콜렉터블 디자인, 설치미술 분야예요.” 위켄드랩은 직관적으로 소재를 개발한 후, 판재나 블럭으로 만들기도 하고 작업물에 그들만의 색을 덧입히면서 작업을 계속해나가고 있다.

현재 위켄드랩의 작업은 크게 보면 두갈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소재를 중심으로 하는 B2B 주문 제작이다. “주로 기업에서 나오는 동식물 폐기물과 산업 폐기물 중 충분히 쓸모 있음에도 버려지는 것들의 새로운 쓰임새를 찾아 재탄생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듣고 지금까지 위켄드랩이 만든 소재를 보면 경이로운 마음에 감탄하게 된다. 현재 위켄드랩이 보유하고 있는 대표 소재로 네가지를 꼽을 수 있다. 달걀 껍데기, 굴 껍데기를 사용한 업사이클링 소재 ‘오이그’, 오리알 노른자 업사이클링 소재 ‘템페라’, 밀거나 화훼 폐기물과 같은 식물성 재료를 플라스틱과 믹스한 소재, 그리고 가벼운 종이 질감이 특징인 닥종이 소재까지. 무엇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 두번째는 위켄드랩의 자체 프로젝트이다. “자체 프로젝트의 경우, 소재나 문화, 사회적인 지속가능성을 총망라하여 진행하고 있어요.” 다양한 소재들의 연구를 통해 그들의 철학과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만들어낸다. 한국적인 키워드와 새로운 시선으로 주목한 소재들이 어우러져 신비로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그들의 작품은 기존의 개념에 질문을 던지듯 새로운 감정을 자아낸다. 범종, 한지, 노리개라는 타이틀의 오브젝트 형태 작품부터 3미터가 넘는 설치물까지 작업은 매우 다양하다.

“처음에는 쓰레기처럼 보이던 소재가 작품으로 재탄생하는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지난 여름에 ‘구름산책자’라는 전시를 위해 3.6미터의 큰 설치물을 제작했던 순간은 정말 인상 깊어요.” 굴 벙이 똥, 황토, 한지, 지푸라기 등 어찌보면 작고 보잘 것 없을 수 있는 소재를 모아 만든 TOTEM이라는 타이틀의 작품. 더운 여름날 작업실 실내 온도가 40도가 넘을 때까지 건조기와 드라이기를 이용해 작품을 말리며 고생을 다했지만, 만들고 나니 매우 뿌듯했다고 위켄드랩의 두 대표는 감상을 전했다. 그들이 만든 작품은 매우 아름답고 매력적이다. 그리고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작품에 대해 깊이있게 알아갈수록 고민과 의도가 전해져서 더욱 감동이 깊어진다. 문득 궁금해졌다. 그들은 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소재의 쓰임새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걸까?

#소재의 가능성

#폐기물의 재탄생



2



2



2

2

달걀 껍데기, 굴 껍데기, 오리알 노른자, 화훼 폐기물 등이 위켄드랩의 중요한 소재다.

3

계속해서 신소재를 찾는 일, 그것을 오브젝트로 재탄생시키는 일,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

#지속가능한 지구

#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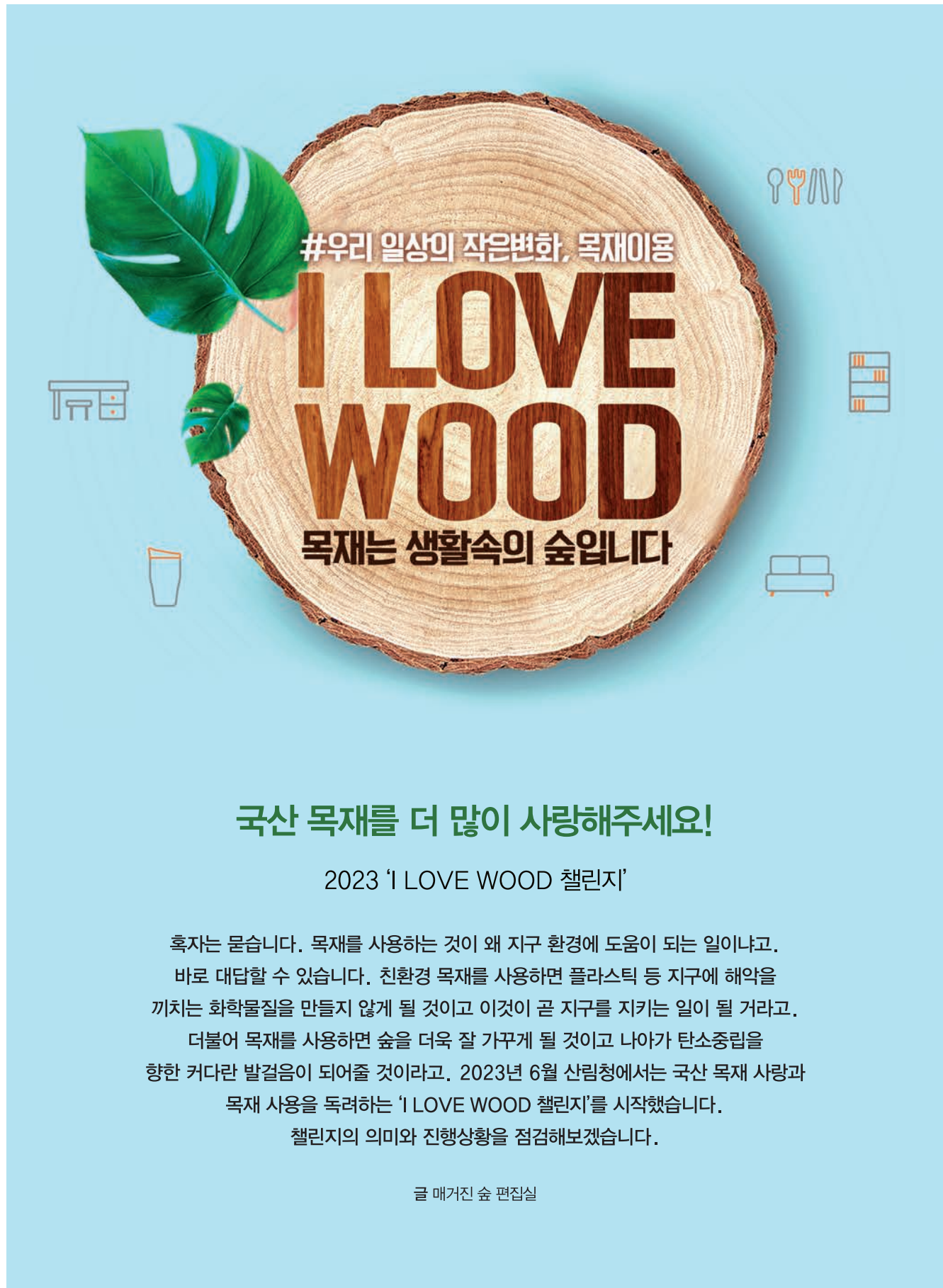
3

지속가능한 지구가 당연해지는 미래를 위해

위켄드랩이 집중하며 의문을 던지는 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 영역이다. “앞으로는 동식물 폐기물 뿐만 아니라, 작업 환경을 더 넓히려고 해요. 문화적, 사회적 측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어요.” 위켄드랩의 두 대표는 앞으로도 계속 세상에 의문을 던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작업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말을 덧붙였다. 이야기를 듣다보니 주목하는 다른 소재가 있는지 궁금해졌다. “글라스울이라는 건축재료가 있어요. 유리병 등을 재활용해서 만든 친환경 소재이자 단열재인데 건물이 철거될 때는 일반쓰레기와 함께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저희는 글라스울 폐기물을 수거하여 다시 유리타일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더 발전한다면, 재개발하는 도시의 소재로 재탄생하거나, 공예로 재사용되어 시스템 변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그들이 말하는 문화적, 사회적 측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래에는 친환경이나 지속가능성 같은 것이 당연해지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면 지구는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위켄드랩의 두 대표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기대감에 찬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을 덧붙인다. 계속해서 새로운 소재를 찾는 일, 그것을 오브젝트로 재탄생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일. 그것이 위켄드랩이 디자인스튜디오임에도 불구하고 ‘랩(연구소)’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일 것이다.

위켄드랩은 주변에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버려지는 것들을 조명하고 그게 왜 그냥 버려져야만 하지? 라는 의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빌어보면, 그렇게 뭔가를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 고민하는 건 ‘자신의 존엄을 표현하는 사랑의 행동’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면 결국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 위켄드랩이 말하는 환경과 지속가능성이 당연해지는 미래가 분명히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둘러보자. 한번 쓰고 버려지는 것, 외면하고 있었던 것을 찾아서. ☀



국산 목재를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2023 'I LOVE WOOD 챌린지'

혹자는 묻습니다. 목재를 사용하는 것이 왜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이냐고.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목재를 사용하면 플라스틱 등 지구에 해악을 끼치는 화학물질을 만들지 않게 될 것이고 이것이 곧 지구를 지키는 일이 될 거라고. 더불어 목재를 사용하면 숲을 더욱 잘 가꾸게 될 것이고 나아가 탄소중립을 향한 커다란 발걸음이 되어줄 것이라고. 2023년 6월 산림청에서는 국산 목재 사랑과 목재 사용을 독려하는 'I LOVE WOOD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챌린지의 의미와 진행상황을 점검해보겠습니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보존만 하는 목재? 쓸모를 찾은 목재!

최근 사람들은 산림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숲을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는 의지가 더욱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가꾼 산림을 목재로 활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난색을 표합니다. 목재를 자연으로 생각하고 자원으로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산림은 보존해야 할 자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까요? 우리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은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중한 국가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국산 목재 자급률은 2022년 기준 15%에 불과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매년 필요한 목재의 약 8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외화 지출도 매년 약 7조원에 달하죠. 국토의 63%를 숲으로 가진 국가로서는 너무 저조한 목재 자급률이 아닐까요?

목재이용이 곧 탄소 중립

목재는 국제적으로 안정된 탄소저장 소재로서 국산 목재 이용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U, FAO 등 국제사회에서도 목재의 탄소중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목재 활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UN 기후 변화협약에서도 목재를 탄소저장 소재로 인정했고요. 자국의 목재를 이용한 양만큼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의도 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건축 소재로서의 목재인데요.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단계적 목재 이용 원칙 (Cascading Principle)' 때문이에요. 이 원칙은 목재를 오랜 기간, 다른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용도로 우선 사용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목재나 폐목재 등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지는 겁니다. 실제로 건축에 목재를 이용하면 다른 용도 대비 오랜 기간 목재를 이용할 수 있고 철근·콘크리트 등 탄소집약 소재를 대체할 수도 있답니다. 약 30평 규모의 목조건축은 탄소 약 40톤을 저감하는 효과가

1

예능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목공 실력을 보여주었던 유해진 배우도 'I LOVE WOOD 챌린지'에 참여했다.





기후변화 시대, 탄소를 줄이는 아주 쉽고 지혜로운 방법인 목재 이용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2
한국인이 사랑하는 금난새
지휘자가 'I LOVE WOOD
챌린지'에 참여했다.

3
하이킹 에반젤리스트로
활동하는 김성주씨도
'I LOVE WOOD 챌린지'에
참여했다.

있다고 하는데 어때요? 기대 이상의 데이터죠?
이런 추세를 반영한 탓일까요? 최근 세계에서는 건
축재로서 목재의 쓰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답니
다. 프랑스는 자국 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조직을 출범시켰고요, 일본에서는 모든 공공건축물
을 원칙적으로 목재로 짓도록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우선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국
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목재친화도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등을 펼치고 있고요. 국내 목
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목재산업단지, 목재



산업 시설 현대화사업, 목재정보 서비스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도 국산 목재를 우
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고요.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등
법·제도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3 'I LOVE WOOD 챌린지'

더불어 6월부터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도 시작하고
있는데요. 바로 'I LOVE WOOD 챌린지'입니다. 전
국민에게 익숙한 인스타그램을 통해 목재이용이 곧
탄소중립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실시하는 캠페
인이죠.

이 챌린지는 9월 말까지 4개월간 진행되는데요. 먼
저 산림청에서 만든 챌린지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2023ilovewood'나 페이스북 '@대한민국산림
청'을 팔로우하고요, 양 손가락으로 목재를 표현하는
더블유(W) 사진, 혹은 영상을 게시하거나 'I LOVE
WOOD 챌린지' 공식 이미지를 내려 받아 사진을 찍
은 후 게시하면 됩니다.

필수 해시태그도 함께 업로드해주셔야 하는데요.
'#대한민국산림청', '#ilovewood', '#목재는생활속의
숲입니다'와 함께 목재이용을 다짐하는 내용, 같이
참여할 친구 2명을 지목해 올려주시면 됩니다.

6월 1일 남성현 산림청장의 참여로 시작된 챌린지
는 금난새 지휘자, 유해진 배우, 김성주 하이킹 에반
젤리스트 등 사회 지도층, 연예인과 함께 평소 목공,
목재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폭넓게 확
대해갈 계획이고요. 참여자를 추천하여 국산 나무로

4
전국민의 활발한 목재
활용을 응원하는 챌린지는
9월 말까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된다.

만든 명함 케이스, 산림청 제작 굿즈, 3만원 이상의
기프트콘(500명) 등 경품도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챌린지를 하는 즐거움도 있을 거고요. 경품을
받는 행운도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
시대 탄소를 줄이는 방법으로 일상 속에서 목재 이용
을 활성화해가는 것이겠죠? 기후변화가 피부로 느껴
지고 있는 요즘, 탄소를 줄이는 아주 쉽고 지혜로운
방법인 목재 이용을 한시라도 빨리 시작했으면 합니
다. 탄소를 줄이는 것은 다른 누군가 아닌, 나를 위
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니까요. 숲

2023 'I LOVE WOOD 챌린지' 참여방법



@2023_ilovewood

I LOVE WOOD
일상 속 작은 변화, 목재이용
"목재는 생활 속의 숲입니다"

팔로잉

I LOVE WOOD 공식 인스타그램

1. 2023_ilovewood 팔로우하기
2. 목재(WOOD)를 표현하는 W모양을 만들어 촬영
또는 ilovewood 챌린지 공식이미지를 들고 촬영
3. 목재 이용을 다짐하는 내용과 함께 본인 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태그를 써서 업로드
#대한민국산림청 #ilovewood #목재는생활속의숲입니다
4. 같이 참여할 친구 2명을 지목하면 챌린지 참여 완료!



셀럽들과 함께 하는
2023 'I LOVE WOOD
챌린지', QR 코드를 통해
만나보세요.

숲속에서 숲을 읽다

한여름에 읽기 좋은
숲이 등장하는 소설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달려가고픈 휴가지와 더운 여름밤을 서늘하게 해줄 공포영화, 그리고 잡으면 한숨에 다 읽을 만큼 매혹적인 몇 권의 소설들. 이번 호에서는 숲이 등장하는 소설들을 소개해본다.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숲, 이야기의 매혹적인 배경이 되는 숲, 숲을 주제로 한, 배경으로 한, 줄거리로 한 소설들을 만나보고 숲의 매혹적인 이미지와 이야기에 빠져보도록 하자.

지구 끝의 온실

김초엽

치명적인 더스트가 지구를 덮치고 모든 생명체가 속수무책으로 사라져 버린 디스토피아, 이 소설은 종말의 시대를 건너온 사람들의 증언들로 시작된다. 환경오염으로 시시각각 절망에 빠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기어이 희망을 찾아낸 사람들의 이야기. 소설 속에서 지구를 구한 것은 어떤 특별한 과학적 이론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켜낸 대책 없는 사람들의 희망과 믿음이다. 지구 끝의 온실에서 찾아낸 구원의 식물, 모스바나 이야기를 만나고 싶다면 오늘 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을 정독해보시길.



사라진 숲의 아이들

손보미

사라진 숲의 아이들은 정교한 플롯과 개성적인 스타일로 쓰여진 탐정 소설이자 심리 수사극이다. 시작은 도심에서 시작된 살인 사건. 탐사보도 PD 채유형과 형사 진경언은 이 사건을 함께 풀어가며 진실에 접근해간다. 초기 단서는 '꽃이 피어 있던 울지로의 숲으로 가보라'는 말. 그러나 그곳에는 숲이라고 할 만한 장소가 없다. 울지로의 숲은 왜 사라진 걸까? 사라진 아이들은 왜 서로를 죽이고 죽어야만 했을까? 사건 기록을 살피고 이름을 대조하고 사건을 재구성할수록 미궁에 빠지는 것 같은 심리 스릴러. 더운 여름밤을 시원하게 식혀줄 '사라진 숲의 아이들'을 읽어보시기 바란다.

바다숲

김준호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바다숲. 그곳은 이미 한 번 살아낸 인생을 다시 한 번 되돌려 살아야 하는 시공간이다.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는 그곳에서 그는 무엇을 찾아내야만 할까? 어떤 이유로 한 번 살아낸 인생을 또 한 번 살아내야 할까? 김준호 작가가 펴낸 판타지 소설, 바다숲은 여러 번의 반전을 통해 독자들에게 죽음과 삶의 의미를 깨닫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두 개의 인생 사이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남자의 이야기. 소설을 읽으며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여운을 만나보도록 하자.



나무

베르나르 베르베르

18개의 단편 소설을 엮은 '나무'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이다. 소설집의 표제로 쓴 '나무'는 단편 소설 중 하나인 '가능성의 나무'에서 따온 것이다. 작가는 미래의 모든 가능성들을 나무처럼 계통도로 그려서 검토해 본다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인류와 과학과 환경의 연결성'이라는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 다른 단편들도 매우 흥미로운 책, 일독을 권한다.

숲속 우체통

김지만 인천시 연수구



중년의 시점에서 읽어본 '러스틱 라이프' 기사는 제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빠르고 편리하고 빈틈없는 삶에 익숙해져 있지만 정작 그 안에서 느끼는 공허함은 물질로는 대체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삶의 풍성함을 채우기 위해 러스틱 라이프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약간의 불편함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가짐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재섭 서울시 중랑구



피톤치드에 대해 이모저모를 알게 되는 책,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Perfume(향료)의 어원적 풀이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애향 관습은 신선한 읽을 거리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회복시켜 주는 인생 향기를 하나씩 찾았으면 좋겠다'는 조향사의 조근조근한 조언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장인선 강원도 춘천시



'우리가 산불을 막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 기사가 유익했습니다. 동해안을 여행하다보면 지난 봄에 발생한 산불 흔적이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 마음이 아팠거든요. 특히 거센 불길과 연기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불을 끄려 뛰어다니는 산불진화대원들, 그들의 노력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은진 대전시 유성구



평소 환경보호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음식 업사이클링 제목을 보는 순간 마음이 확 끌렸습니다. 리하베스트란 이름에서 또 다른 표현인 '주목받지 못한 재료에 새로운 가치를 담다'라는 표현에 감탄했고 사료나 퇴비로 쓰이던 맥아 부산물로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제분을 만든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사 많이 부탁드립니다.

김정근 충북 청주시



향기, 피톤치드, 음식, 다큐 등 생활과 접목되는 자료와 정보가 가득한 책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어떤 정보> 코너의 '바로 우리가 피톤치드 나무들' 기사가 좋았네요. 나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어서요. 앞으로 매거진 숲에서 만나고 싶은 기사는요, 국내 휴양림이나 수목원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용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우 대구시 중구



<숲의 선물> 피톤치드 내용이 유익했습니다. 워낙 보니 어린 시절 가족 모두 산에 캠핑을 가서 이른 아침 느꼈던 그 기분 좋은 상쾌함이 기억나더군요. 숲에서 일어나면 살짝 추우면서 그윽하고 청량한 숲 내음이 온 몸에 스며드는 느낌이 나잖아요? 기사를 읽고 숲 갈증(?)이 유발되어 야생곰처럼 숲에 뛰어 들어가 숲명을 하고 싶습니다.

숲의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두 달간 산림청에 있었던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재난에 대한 빠른 인지와 대응을 위해 국민행동요령을 구체화해 개정했다. 단계별, 장소별로 국민행동을 세분화하고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행동요령을 포함한 것이 이번 개정의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위험요인 점검, 대피경로·장소 사전 숙지, 발생시 산사태와 멀어지는 방향의 마을회관, 학교로 대피, 산림청 '스마트산림재해'앱이나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소방서에 신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7월, 이달의 임업인
경남 김해 최석용씨



경남 김해에서 산딸기를 생산하는 최석용씨가 7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선정되었다. 최석용씨는 23년 전 귀산촌한 임업인으로 국내 최초 친환경 유기농 산딸기를 재배했으며 발효잼, 식초, 와인 등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했다. 더 나아가 산딸기를 활용한 와인동굴과 열차카페 등을 운영하여 김해의 관광영으로 발전시키기도 했다. 1차 생산물 판매를 넘어 가공품 개발과 6차 산업까지 실현한 최석용씨의 끝없는 도전을 응원한다.



경기, 강원, 경상, 전라 권역 4개의 국립 산림휴양시설에 반려견 동반이 허용된다. 예약은 숲나들e(www.foresttrip.go.kr)를 통해 받는다. 동반 가능한 반려견은 동물등록번호가 발급된 6개월 이상, 15kg 이하의 중·소형견이다. 객실당 2마리까지 동반할 수 있고 단순 입장객은 1인당 1마리까지 동반할 수 있으며, 반려견 동반 추가요금은 없다. 매주 화요일은 해충 방역을 위해 정기 휴관하므로 참고하시길.

전국 무궁화축제 8월 10일~15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려



‘제33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가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전남 순천만국가정원 서문 국제습지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무궁화축제는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고 무궁화 위상을 높이기 위해 199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전국에서 출품한 1,000여 점의 무궁화 화분들이 습지 둘레와 아바타·정원역 광장 일원에 전시될 이번 축제에서 무궁화의 무궁한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즐겨보시기를 바란다.

July + August
2023



각각의 스위치를 켜고
숨명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세요.

로리 코르포트의 시

<내가 지금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중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그저 당신이 당신이어서이기도 하지만
당신 곁에서 내가
또 다른 나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내 삶의 목적으로
헛간이 아니라 신전을 짓도록 도와주고,
내가 날마다 하는 일을 버린하지 않고,
노래가 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illegible]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0/20

주소

--	--	--	--	--

받는 사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대변인실 <매거진 숲> 편집부 앞

3	5	2	0	8
---	---	---	---	---

요금수취인
후 납 부 담

발송유효기간
2016.10.13 ~ 9999.12.31

대전둔산우체국
제40198호

산림청

부터 하기

무

K10

보
다
여.



에서



2023 7+8월호 독자의견

이름

1.이번 호를 읽고 난 소감을 적어주세요.

전화

이메일

2.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3.이번 호에서 가장 아쉬웠던 내용과 이유는?

4.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매월 말일까지 엽서 또는 이메일 (Magazinesup@korea.kr)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매거진 숲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습니다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여름철 우기 및 태풍(폭풍) 전

**산과 가까이에 있는 주택(건물)
배수시설 점검하기**

• 위험요인 발견 시 거주지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세요.



집중호우 및 태풍(폭풍) 시

**기상정보 및 대피장소 확인하기
산 주변에서 야외활동 하지 않기**

•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 확인방법
- 산사태 정보시스템(sansatai.forest.go.kr)
- 스마트폰 '스마트산림재해' 앱



산사태정보시스템(sansatai.forest.go.kr)



스마트산림재해 (스마트폰 앱)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지정된 대피장소나 산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산에서는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방향,
가장 안전한 높은 곳으로 대피하기**



야영(캠핑) 중에는

**계곡은 무리하게 건너지 말고
계곡에서 떨어진 높은 언덕으로
대피하기**



주택(건물)에서 대피하지 못한 경우

**산과 멀리 있는 가장 높은 층
방으로 대피하기**



운전 중에는

**저속 운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 대피 이동 중에는 신호등, 가로등, 고압전선 인근으로 접근을
자제하세요.



산사태국민행동요령과 대피장소 관련 자세한 정보는
산사태정보시스템,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스마트폰 앱 '스마트산림재해' 앱에서 확인하세요.



스마트산림재해
산림청

다운로드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하기